

“요즘은 정말 힘든 것 같아.”

유정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가만히 앉아 내 앞에 놓인 트레이를 바라봤다. 거기엔 감자튀김이 식어있었다. 크루 룸은 추웠다. 에어컨이 쉴 새 없이 동작했고, 우리는 반팔을 입고 있었다. 그건 맥도날드의 규칙이었다. 밖이 어떤 날씨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차피 주방은 매일 더웠고, 크루 룸에서의 시간은 극히 일부였으니까.

“내가 봐도 너 정말 지쳐 보여.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나는 감자튀김을 머스타드에 찍어서 먹었다. 턱을 우적거릴 때마다 기름이 입안을 적셨다. 푸석거렸다. 유정은 멍하니 내가 감자튀김을 먹는 걸 지켜봤다. 나는 내가 우적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크루 룸 밖에서 쉴 새 없이 들리는 알림음들은 좋은 연막이 되었다.

“그냥, 좀 힘든가 봐. 어제는 꿈을 꿔는데, 꿈속에서도 햄버거를 만들고 있더라고. 아주 열심히. 계속 만들고, 굽고, 튀겼어. 그런데 그렇게 일하다가 DT 주문을 받았는데, 어떤 진상이 하나 온 거야. 오자마자 싸이버거를 달라고 하더라고, 피클은 빼고.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손님, 여기는 맥도날드예요. 싸이버거는 없어요. 그거는 다른 가게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저희도 치킨 버거 종류가 몇 개 있는데 그거로 해드릴까요? 대신 맥도날드는 치킨버거에 피클이 항상 안 들어가요. 맘스터치보다 낫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랬더니 화를 막 내더라고.”

“왜, 거기서 화를 내는 건데? 네가 우습게 여겼다고 생각한 건가?”

“그거야 나는 모르지. 꿈이니까. 내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투로 이야기했는지 알 게 뭐야. 꿈인데.”

“그거는 그렇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나는 콜라를 호로록 마시며 유정의 눈을 쳐다봤다. 그녀는 내 미간과 인중 사이 어딘가를 보고 있었다.

“그때부터 그 사람 말투가 되게 공격적으로 바뀐 거야. 아 됐고요, 그럼 아무거나 줘. 이렇게 반말을 하는 거야. 내가 아무거나 달라고 하면 뭘 줘야 하냐고, 내가 한참을 손님이 원하시는 걸 말해주셔야 만들어드리죠. 이렇게 말했더니, 그제야 아까 말한 치킨 버거 중에 하나를 달라고 하더라고. 그다음엔 음료수를 어떤 거로 드릴까요, 물었더니 화를 내면서 그런 것쯤은 제발 알아서 해달라고! 소리쳤어. 너네가 나한테 신경을 쓴다면 그런 것쯤은 스스로 하라고.”

“초면인데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근데 실제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하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치? 나도 그쯤부터는 패닉이 와서 알겠으니까 그냥 지나가서 기다리라고 말했어. 그다음부터 치킨버거를 만들었는데, 빵도 안 굽고, 치킨을 피클 국물에 한 번 적셔서 그 위에 올렸어. 그렇게 해도 성에 안 차서, 내보내기 직전에 다시 포장을 벗기고 빵을 들어 올려서 가래침을 각 한번 뱉어서 다시 포장했어.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유정은 콜라를 한 입 마셨다. 몸이 차가운지 의자 위에 다리를 올리고 웅크렸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나는 뒷이야기가 궁금해졌다. 언젠가 나도 햄버거에 침을 뱉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뒤에 그 사람이 그 햄버거를 잘 먹었는지는 모르겠어. 그건 난 신경을 안 쓰더라고. 대신에 우리 가게가 사라졌어. 우리 지점이 맥도날드에 평균적인 맛보다 뛰어났다는 거야. 알래스카에서 먹은 빅맥하고, 우리 가게에서 먹은 빅맥의 맛이 달랐대. 그래서 여기는 맥도날드가 아니라는 거지. 준형 매니저가 자기가 아는 건 이게 다라고 말했는데. 들으면서 어이가 없더라. 그 말 듣자마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잠에서 깼어. 은근히 뒤에 무슨 일이 더 벌어질지 궁금해서 다시 잠에 들려고 했는데 출근 시간이더라. 좀 아쉬웠어.”

“재밌는 꿈이네.” 나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다. 남은 감자튀김을 먹으려고 했는데, 남은 게 없었다. “꿈에서도 너는 맥도날드에서 일하는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러게.” 유정은 결국 추위를 참지 못했는지, 따뜻한 커피를 가지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는 혼자 크루 룸에 남아서 쟁반위에 남은 케첩을 쳐다봤다. 유정은 다시 크루룸에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앞치마를 메고 일을 하러 갔다. 나도 곧 그렇게 했다. 크루룸은 계속 추웠다.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러 가기로 했다. 자주 있던 일이었다. 일은 7시쯤 끝났고, 그때는 해가 뜰 무렵이었다. 우리가 찾아간 술집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결국 편의점에서 소주 두 병을 사 근처 공원을 찾아갔다. 날이 더웠다. 맥도날드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바깥의 계절감은 느끼기 힘들었다. 항상 일정한 더위 혹은 추위가 유지되었고, 그건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침이었지만 우리는 매우 피곤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우리는 병의 뚜껑을 따고, 술을 들이켰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혹은 그 외의 사람과 어딘가로 걸어갔다. 아마 유치원이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말없이 술을 마셨다. 우리는 지쳐있었다. 아니 나는 지쳐있었고, 유정도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다. 안주 하나 없이 술을 마실 뿐이었고, (안주를 살 돈은 있었지만, 먹고 싶지 않다는데 둘 다 동의했다) 이따금 산책을 나온 노인들이 우리를 훑어 보고 혀를 찼다. 젊은것들이 벌써부터 술을 마시는 구만, 정상이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었다.

“너는 일을 언제까지 할 거야.” 유정은 왼손에 초록 병을 든 채 미끄럼틀을 바라보며 이야기했다. 그 시선의 끝엔 작은 아이가 하나 서 있었다.

“그러게, 언제든지 사직서를 쓸 준비는 되어있긴 한데, 언제까지고 이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어. 아직은 더 다닐 것 같아.” 나는 그 아이를 쳐다보지 않았다. 나는 애가 싫었다.

“난 조만간 그만두려고.” 그녀는 술을 다 비웠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편의점에 다시 가자고 했다. 나는 집에 가야겠다고 말했다. 조금 잠을 자고 다시 일하러 가야지. 오늘은 오후 쉬프트니까. 그렇지, 다시 가야지. 유정과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니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모르겠다.

유정은 내가 들어오기 한참전부터 일을 했다. 직접 그녀에게 물어본 적은 없지만, 같이 일했던 누군가가 칠 년은 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스물여덟 살이었고, 인생의 삼분의 일을 이곳에서 보낸 셈이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지하철의 승객처럼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이곳을 떠나갔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다. 유정처럼 오래 일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지하철은 언젠가 종점에 도달해야만 했고, 그때가 되면 대부분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정이 탄 지하철은 내선 순환 열차였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유정은 내게 모든 것들을 가르쳤다. 감자튀김은 몇 분 튀겨야 하는지, 패티는 몇 초 구워야 하는지, 준비해둔 재료는 몇 분 동안 보관할 수 있는지, 물론 그런 것들을 기억할 필요는 없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기계들이 시간이 되면 알람을 울렸다. 나는 그 소리에 맞춰서 건지고, 뒤집고, 건고, 버리면 될 뿐이었다. 내가 할 일들은 복잡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었다. 나는 왜 맥도날드에서 기계가 햄버거를 만들지 않는지 의아했다. 디스펜서에 재료도 자동으로 채우고, 패티도 자동으로 굽고, 햄버거에 야채를 넣고, 소스를 뿌리고, 패티를 넣는 것도 기계가 하면 정량대로 더 빠르고 깔끔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많은 직원들을 쓸까? 그 이유는 일을 그만둘 때까지도 알 수 없었다.

그 외에도 유정은 많은 것들을 알려줬다. 어떤 소스를 먼저 뿌려야 하는지, 냉장고엔 몇 가지의 냉장식품을 넣어야 하는지, 빅맥에는 양상추가 몇 그램 들어가야 하는지까지, 세세한 모든 요소들을 아이를 기르는 부모처럼 하나하나 상냥하게 가르쳤다. 나는 그것들을 곧잘 따라 했다. 곧 우리는 좋은 구리스가 발린 톱니바퀴처럼 쉬지 않고, 사고 없이, 매끄럽게 돌아갔다.

일은 대체로 바빴다. 일하는 도중에는 단 한 순간도 앓을 수 없었다. 이따금 벽에 등을 기대면 매니저는 농땡이 피운다며 한소리를 했다. 한 쪽귀에 낀 헤드셋에선 드라이브 스루에서 주문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우리는 입으로는 주문을 받고, 손은 햄버거를 만들고, 눈은 접수된 주문이 표시된 모니터를 바라봤다. 가끔 짬이 생길 때면 다 쓴 양상추를 채우고, 패티를 구워두고, 치킨 패티를 튀겨두고, 소스 통을 갈아두고, 바닥을 청소하고, 사용한 집게나 스페츨러 같은 것들을

설거지했다.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잡담을 했다. 오늘 뭐 했어, 뭐 한 게 있나, 일어나자마자 출근 했는데. 어제도 그렇게 말했잖아. 너도 똑같잖아. 뭐 다른 일 있었어? 아니 나도 뭐 똑같지. 내일은 뭐 있어? 응, 내일은 소개팅. 근데 연락해보니까 별로여서 애프터는 안 하려고. 밥값 더치페이 하면 알아듣겠지. 그렇구나. 우리 서로의 전화번호도 몰랐다. 어차피 다음날 만나니까, 연락할 필요도 없었다. SNS를 공유하지도 않았다. 올릴 게시물도 없었고, 그런 곳에 올릴만한 일들은 어차피 다음날에 이야기하면 되니까.

새벽에 근무가 잡힌 날에는 준형 매니저가 매장을 관리했다. 준형 매니저는 이제 막 매니저가 된 참이었는데, 그전에는 우리와 같은 크루였다. 준형 오빠, 준형아, 준형이 형, 그렇게 부르다가 준형 매니저님으로 막 호칭을 바꾸려니 여간 어색한 게 아니었다. 우리는 일 끝나는 시간이 맞으면 항상 매장 근처 술집에서 한 잔하곤 했다. 다들 걸어서 출퇴근할 정도로 집도 가까웠고, 애초에 이 동네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대다수였다. 내가 처음으로 입사한 날, 나는 크루들의 호적 조사를 했다.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나 명승고등학교. 중학교는? 명승중학교. 초등학교도? 응. 나도. 대부분은 학교 선후배, 학창시절에는 잘 몰랐던 동창, 아주 가끔 먼 타지에서 썸 월세에 이끌려 온 대학생이 있었다.

준형이 크루로 입사했을 무렵에도 유정은 이미 베테랑이었다. 준형에게도 유정이 일을 가르쳤다. 그리고 몇 년 뒤, 준형은 다니던 대학교를 그만두고, 매니저가 되었다. 유정은 아직도 크루였다. 유정보다 이 매장에서 경력이 긴 사람은 없었다. 매니저들도 모르는 걸 유정은 알았고, 점장도 유정에게 자주 조언을 구하곤 했다. 언젠가 매니저를 할 생각이 없냐고 유정에게 물었다. 절대로 안 할 거라고 바로 답이 돌아왔다. 나는 여기가 너무 싫어. 언제든지 떠날 거야. 매니저를 하면 그러지 못하니까. 나는 '여기'가 맥도날드를 뜻하는 것인지, 이 동네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무언가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매장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유정이 한 손에 제로 콜라가 담긴 컵을 들고 내게 왔다. 나는 유정이 들고 있던 컵을 빼앗아 식기세척기에 던져 넣었다.

“끝나고 시간 있어?” 유정이 물었다.

“응, 별다른 일은 없어.” 나는 그녀를 보지 않고 대답했다.

“저녁 먹으러 갈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음. 난 뭐가 먹고 싶어?”

“마라탕 먹으러 갈까?”

“마라탕, 나쁘지 않지.”

“감자탕은 어때?”

“감자탕도 좋지.”

“봉골레 파스타는?”

“자주 먹지는 않는 데 좋을 것 같아.”

“빵에 카이막하고 꿀 얹어서 먹을래?”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맛있을 것 같아.”

“메트로코리스를 먹자 그러면.”

“그거로 하자. 이름이 마음에 들어.” 나는 될 대로 되란 심산이었던 것 같다.

“바보야, 메트로코리스는 먹는 게 아니야. 나 조금 무서워지려고 그래. 너는 네 주관이 없어? 뭐 먹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런 거 말을 안 해? 아무거나 말해도 다 괜찮다고 하는 거야? 너는 내가 지옥에 가자고 해도 좋다고 할 거야?” 유정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대답을 하려다 말았다. 실제로 좋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 전부 다 싫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너한테 맞춰주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잘못된 게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먹고 싶은 게 없으면 그냥 먹기 싫다고 말하라고 말하라며, 유정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다시 마저 하던 설거지를 계속했다. 고무장갑에 구멍이 났는지 자꾸 뜨거운 물이 새어 들어왔다. 그건 생각보다 뜨겁지 않았다.

그날 일은 9시에 끝났다. 유정은 10시 퇴근이었고, 나는 크루룸에서 유정을 기다렸다. 휴대폰으로 뉴스를 읽다가 추워져서 뒷문으로 나가서 숨을 돌렸다. 해는 이미 떨어진 지 오래였고, 달은 구름에 가렸는지 보이지 않았다. 담배를 한 대 물었다. 필터가 차가웠다. 가게 근처에는 명승고등학교가 있었다. 야자를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들이 보였다. 요즘도 야자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까보던 뉴스에선 세계 어딘가에 전쟁이 났다고 했다. 총을 잡을 수 있다면 전부 징집되었다고 했다. 그러면 손이 없다면 가지 않는 걸까.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왜 전쟁을 시작했을까. 전장에서 도망칠 방법은 없을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대개는 답이 없거나, 알 수 없는 질문이었다. 어쨌든 시간은 잘 흘러갔고, 유정이 뒷문으로 걸어 나왔고, 나는 유정을 따라갔다.

30분쯤 걸어가니 맥도날드가 있었다. 유정은 내게 맥도날드가 어떠냐고 물었다. 나는 싫다고 말했다. 유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밤늦게까지 하는 곳은 이런 곳밖에 없는걸.”

“그러면 우리 매장에서 먹으면 되잖아.”

“조금이라도 다른 곳을 가보자. 계속 일한 곳에서 먹기는 싫어.”

“여기는 달라?” 나는 조금 짜증이 났다.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정했어야지.”

그러고는 유정은 막무가내로 내 손을 잡고 자동문 안으로 끌고 갔다. 가게 안은 한산했다. 카운터에 서 있는 직원 한 명이 전부였다. 우리는 직원할인쿠폰을 써서 주문하기로 했다. 맥도날드 앱에서 쿠폰을 켜 직원에게 건넸다. 직원은 그 쿠폰을 처음 보는 듯했다. 휴대폰에 뜬 바코드를 스캐너로 찍어보기도 하고, 쿠폰 번호를 하나하나 다 입력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할인쿠폰이 적용이 잘 안된다고 해서 무슨 쿠폰인지 아냐고 물었다. 유정은 답답했는지 직접 포스기에 입력하겠다고 카운터에 들어가 와다닥 입력했다.

“이건 메뉴가 정해진 할인쿠폰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이에요.”

“아하, 이런 것도 있었군요.” 직원은 정말로 처음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너는 뭘 먹을 거야.” 유정이 내게 물었다.

“필레 오 피쉬.”

“그래.”

“넌 뭘 먹을 거야?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먹어봤어? 저거는 어때.” 카운터 위에 있던 전광판에 야구공 모양의 햄버거가 보였다. 나는 그걸 가리켰다.

“아직 안 먹어봤어. 맛있어 보이긴 하던데. 그거나 먹을까. 오늘은 내가 살게.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줘. 더치페이 하기 귀찮잖아.” 유정은 내 손끝을 보지 않고, 포스기에 카드를 긁었다.

우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유정은 내게 휴대폰을 건네면서 인스타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했다. 나는 휴대폰을 받고 내 아이디를 적어 건넸다.

“나 이렇게 자주 보면서 인스타 맛팔 안 된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유정은 휴대폰으로 내 인스타에 들어갔다.

“그러게, 우리는 왜 서로 팔로우도 안 한 걸까. 진작에 물어볼 걸 그랬나.” 나도 휴대폰을 꺼냈다.

“난 너 번호도 없어.”

나는 DM으로 유정에게 내 번호를 보냈다. 그리곤 유정의 인스타를 확인했다. 유정의 인스타에는 얼마 전 개봉한 영화의 포스터가 있었고, 친구들과 찍은 네 컷짜리 스티커 사진도 있었다. 혼자 바다를 간 사진도 있었다. 하나, 하나 천천히 보고 읽었다. 생각보다 내가 몰랐던 것들이 많았다. 그때 카톡이 하나 왔다. ‘뭘 그렇게 훑쳐봐’ 유정은 킁킁거리면서 웃었다. 너는 인스타그램 팔

로우도 20명이구 팔로워도 20명이네, 친구 없구나. 게시글은 왜 아무것도 안 올렸니. 그다지 올리고 싶은 게 없어서.

유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을 가지러 갔다. 필레 오 피쉬가 하나 나왔고, 햄버거가 하나 나왔다.

“새로운 나온 거 먹는다더니 왜 햄버거를 시켰어? 이걸 안에 들은 게 없잖아.”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먹는 게 이상한 거야?”

“말은 그래도 이걸 안에 패티밖에 없잖아. 빵하고 패티.”

“그냥 먹어보고 싶었어. 이걸 아무도 안 먹잖아. 하루에 하나 나갈까 말까 한 데.”

유정은 포장을 벗기고 빵을 걷어 올렸다. 머스타드와 케첩이 묻은 패티가 있었다. 딱 그게 전부였다. 양상추도 없고, 빵 위에 참깨도 없었다. 나는 햄버거의 안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유정은 빵을 다시 덮고 햄버거를 먹었다.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미국에서는 맥도날드 크루도 시급이 삼만 천 칠백원이래. 한국보다 미국은 일하기 더 편할 거 아니야. 그것만 해도 좋은데 같은 일을 하고 시급을 세 배 넘게 받아.”

“저번 달에 이백만 원 정도 벌었으니까... 미국에 가면 육백만 원을 버는 거구나. 여기서 매니저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버네.”

“어때 좋아 보이지 않아? 일 그만두고 같이 갈래?”

“맥도날드를 그만두고 맥도날드로 가는 거야?”

“말하고 보니까 그렇네.”

“다른 일을 해보고 싶지는 않아?” 유정은 내 말을 듣곤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곤 입술을 잘근잘근 씹다가 대답했다.

“해보고 싶은데 난 이제 서른이야. 해본 거라곤 이거밖에 없는걸.”

“그만두고 다른 일 하면 되잖아.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유정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햄버거를 콜라 없이 먹었다. 각자의 버거를 다 먹은 뒤, 유정은 내 인증 언저리를 쳐다보며 이야기했다.

“나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만드는 일을 8년을 했는데, 햄버거를 만들 줄 몰라. 내가 할 줄 아는 건 남들이, 아니 기계가 반죽한 패티를 그릴에 올려놓고, 버튼을 누르는 거. 양상추가 필요하면, 양상추에 묻은 흙을 씻고, 심지를 빼서 손질하는 게 아니라 비닐을 뜯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미 깨끗하고 한입 크기로 손질된 양상추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직접 장을 보러 갈 필요도 없어. 냉장고를 열면 모든 게 채워져 있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기만 하면 돼. 고기를 갈아서, 소금을 넣

고, 계란을 넣고 치대고 동그랗게 만드는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배운 건 고작 오래
서 있는 법, 기계에서 올리는 알림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밖에 없어.”

“지금부터라도 무언갈 배우면 되지 않을까?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 나라에서 국비 지원
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무언가를 배워서 혼자 한다던가.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무언갈
배운다든가 하는 것들. 여기서 일하면서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한 건대?”

“모르겠어.”

“그게 뭐야.”

“너는 나를 잘 모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

“내가 아니더라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럴 거면 왜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그러게. 나도 잘 모르겠어.”

“나는 네가 왜 떠나고 싶어하는지 잘 모르겠어. 물론 넌 어디를 가더라도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
해. 여긴 정말 힘든 곳이잖아. 여기보다 더 어려운 곳들도 많겠지만, 여기서 두 달 이상 일하는
사람도 정말 적어. 다들 얼마 버티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듯이 사라지고, 여기서 버틴다고 해도 기
다리는 건 최저시급이니까. 그 정도는 어디를 가더라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힘든 곳에서 지낼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런데 넌 이런 곳에서 8년을 보냈어. 자그마치 8년. 네가 일을 시작할 때 나
는 중학생이었어. 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여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한 거 아니야? 아무것
도 없는데 왜 여기에 남아있던 거야? 이유가 뭐야? 도대체 여기를 왜 떠나질 못하는 건대?”

“미안해, 그걸 모르겠어. 도대체 왜 결정하지 못하는지, 나도 나를 몰라. 내게 무엇이 모자란 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그냥, 시간이 지나고 보니 여기였던 것뿐이야. 맥도날드
에서는 시간이 빨리 가잖아. 밖에 눈이 오는지, 화창한지, 밤인지, 달이 떴는지, 별은 보이는지, 그
런 건 일이 끝나고 나서야 알 수 있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리니까.”

“그렇게 시간이 다 흐르고 난 다음엔 뭐가 있었는데?”

“그냥 다음 날이 있었을 뿐이야. 어제와 똑같은. 너도 알잖아.”

“겁이 나는 거야?”

“응.”

“어쩌다가 일을 시작한 거야.”

“남들하고 똑같지. 고등학생 때는 용돈이 필요해서, 미성년자를 제대로 대우해 주는 곳은 여기

밖에 없으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도... 돈이 필요했으니까. 특별한 건 없어. 누군가는 중간에 여기를 나간 거고, 나는 그러지 않았을 뿐이야. 잠에서 깨어보니 이미 종착역이 가까워진 뒤였던 거지. 더 나아갈 곳은 없고,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던 거야.”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햄버거는 이미 다 먹은 지 오래였고, 감자튀김이나 음료수 같은 것들은 시키지도 않았었다. 유정의 얼굴은 보기 싫었고, 쟁반위에 깔린 종이를 꾸깃거렸다. 나는 알고 있는 게 없었다. 유정은 돌아가자고 말했다. 어디로?

맥도날드 밖은 깜깜했다. 추웠는지 더웠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그것들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따위나 비추었을 뿐이다. 길은 여전히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다. 유정은 익숙하게 그곳을 걸어 다녔고, 나도 그녀와 다를 게 없었다.

그렇게 걷다가 붉은 벽돌집 앞에 멈춰 섰다. 너는 여기에서 지내는 거야? 응. 혼자 지내? 응. 자취하는 거야? 모르겠어, 그냥 혼자서 살아. 그렇구나. 넌 매니저 할 생각이 있어? 음, 모르겠어. 이 집에서 얼마나 살았는데? 맥도날드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구나.

나는 계단을 올라가는 유정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유정은 문 앞에 서서 할말이 있는 듯이 나를 바라봤다. 그러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내일 보자고 말했다. 유정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돌아갔다.

다음날은 유정과 근무가 겹치지 않았다. 매장에 출근하니 점장은 준형과 딜리버리를 받으라고 말했다. 오전 9시가 되자 매장 앞으로 커다란 트럭이 다가왔다. 운전기사는 카트를 트럭에서 하차 시켰고, 카트가 다 내려올 때쯤 준형은 배송온 것들을 검수했다. 나는 카운터로 들어가 카페라떼를 한 잔 내려왔다. 그건 그 기사가 항상 찾는 음료수였다. 나는 카페라떼를 그에게 건넸다. 그는 감사 인사를 하곤 떠나갔다.

우리는 카트 위에 놓인 박스들을 하나하나 들어서 뒷문으로 옮겼다. 카트 하나에는 10킬로 정도 되는 박스가 20개 정도 쌓여있었다. 준형에게 물어보니 카트가 12개가 왔다고 했다. 카트 하나 분량의 박스를 안으로 다 옮긴 후에는 정리를 시작했다. 건자재들은 건자재실에, 냉동식품은 냉동창고에, 냉장식품은 냉장고에. 우리는 어제 있었던 농구 경기 이야기를 했다. 준형은 돈을 걸었는데 어제는 돈을 건 팀이 이겼다고 말했다. 스테판 커리가 어제 62점을 넣었어. 커리 때문에 10만원 먹었다. 오늘은 일하는 게 힘들지 않네. 요즘 골든스테이트는 질 것 같지가 않아. 정말로. 너도 한번 시작해봐. 형, 저는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나도 취미로 하는 거야. 하루에 만원 정도는 취미로 쓸만하잖아. 그렇죠.

배송 온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하니 세 시간 정도 걸렸다. 나는 크루룸에 들어가 담배를 챙겨 나

왔다. 뒷문으로 나가니 준형이 쪼그려 앉아있었다. 나도 그 옆에 쪼그려 앉아 담배에 불을 붙여 준형에게 건넸다.

“형은 왜 매니저를 했어요?”

“맥도날드가 좋아서 했지.”

“진짜요?”

“그러겠냐, 씨발. 그냥 하는 거지. 그런 데서 이유를 왜 찾아. 그냥 하는 거야. 30분 일찍 퇴근하면 그게 행복해서 하는 거고, 맥도날드는 알바도 열심히 하면 CEO가 될 수 있다잖아. 그런 걸 목표로도 해보는 거고.”

“형은 점장까지 할 거예요?”

“그건 모르지. 당장 내일 골든스테이트가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 조금씩 해 나가면 되는 거야.” 준형은 피던 담배를 밟아 끈 뒤, 앞에 있던 강통에 던져 넣었다.

“먼저 들어간다. 점장이 휴식가고 싶으면 다녀오래.” 그는 나를 보지 않고 손을 흔들었다.

비가 오기 시작했다. 동시에 햇살도 따가웠다. 나는 그 정도는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전에 일을 다 마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출퇴근 기록기에 지문을 찍고, 휴식을 간다고 점장에게 말했다. 크루룸에 앉아있다가 사물함에서 휴대폰을 가져왔다. 그리고 유정에게 카카오페이로 3500원을 송금했다.

‘어제 먹은 햄버거 값이야.’ 그렇게 카톡을 남겼다. 그리고 카톡방을 나갔다.

유정은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다. 그다음 날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이주가 지났고, 유정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했다. 누군가는 유정에게 교통사고가 났을 거라 말했고, 누군가는 로또에 당첨된 것 같다고 말했다. 나도 그녀의 근황을 알 수 없었다. 난 그녀의 인스타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다. 다만 몇 년이 지난 뒤, 나는 맘스터치에서 그녀를 닮은 사람을 봤을 뿐이었다.